

KCRP 정기총회 대표회장 개회 인사 말씀

2015년 KCRP 정기총회에 참석하신 7대 종단 대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의 기운이 넘치는 봄소식처럼 올 한해도 늘 건강하시고 만사여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올해는 여러 가지로 의미 있는 해입니다. 광복 70주년이 되는 해이며, 한편으로 우리 민족의 비극인 분단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KCRP는 지난 활동을 통해서 이웃 종교 간의 대화 뿐 아니라 우리 민족의 평화통일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분단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올 해는 우리 민족 앞에 통일의 서광이 비추기를 깊은 마음으로 소망하면서, 이를 위해 우리 모두는 더욱 정진에 매진해야겠다는 다짐을 가져봅니다.

그런가하면 KCRP는 내년이면 창립 3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동안 한국 종교계의 대화와 화합, 나아가 상생의 중추 역할을 감당해온 노고가 긴 역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30주년을 보다 의미있게 맞이하기 위하여, 올해는 그동안의 KCRP 활동을 차분하게 되돌아보고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종교간 대화, 협력 기구로 더욱 발전해 나가는데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총회를 맞이하면서 제가 신년인사말에서 말씀드린 원융회통의 마음가짐을 상기하게 됩니다. 공론의 장을 열어 놓고 해결점을 함께 찾아가자는 취지입니다. KCRP 총회 또한 바로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에게 의지하자는 소중한 뜻이 담겨있는 공론의 장이기도 합니다. 오늘 총회가 이 원융회통의 정신을 이어 받아 상생의 도를 꽃피우는 향기로운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의 소망과 노력이 온 국민에게 평화롭게 전해지기를 기원합니다.

2015년 2월 25일

KCRP 대표회장 자 승